

제 2 장 헤롯 왕가의 계승

제 2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헤롯왕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들을 죽인 그 못난 왕가에 대하여 이미 앞 장에서 그 기원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했는데 또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도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 땅의 정치와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제국의 인준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백성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부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헤롯 왕조는 항상 적대세력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헤롯에게 '왕'이란 칭호를 붙인다고 그가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 곧 에서의 후예로 이방인 같이 여겼던 그가 왕이 된 것을 싫어했습니다. 헤롯 하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 1 장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헤롯 왕가의 시조는 하스모니안 왕가 마지막 왕, 힐카누스의 신하였던 안티파테르입니다. 그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배반하고 로마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아들 헤롯도 로마제국에 빌붙음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건축에 아주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황제(Caesar)를 기념하여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12년 동안 건축했는가 하면, 또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전 19년에 착수하여 10여년이 걸려 완공하기에 이르죠. 헤롯 이후에도 꾸준히 손질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보수한 것이 주후 63년이었는데, 7년 뒤인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처참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24:1-2).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헤롯의 성전 재건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까? 그는 성전건축과 동시에 또 헬라도시에 우상 신전도 건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반감만 일으켰습니다. 헤롯은 가정적으로도 심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하스모니안 왕가 출신의 아내 마리암이 유대혈통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으므로 시기하여 아내를 처형했습니다 (주전 29년). 그의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던 두 아들도 그는 자신이 죽기 몇 년 전에 각각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는 의심과 시기로 죽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 주전 7년). 그는 심지어 병들어 죽기 닷새 전에 당시 후계자로 임명되어 있던 첫부인 도리스에게서 난 안티파테스를 또 처형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다크라는 사마리아 첩의 소생, 안티파스(Antiphas)에게 갈릴리와 베뢰아를 주게 되었고, 그의 형제 아켈라오에게는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유대땅을 주었으며, 그리고 배다른 아들, 빌립에게 갈릴리 호수 동쪽과 동북쪽 영토를 주어 분봉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주전 4년 3월 병으로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기 직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들들을 질투하여 하나씩 죽인 그의 포악성은 그가 유대 임금 탄생 소식을 접하고 2세 이하 아기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한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극악무도한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초자연적 역사였음을 잘 보여 줍니다 (마태 2:1).

헤롯의 사후 아켈라오의 학정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로마에 청원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켈라오가 왕위 (사실은 분봉왕)에 올랐으나, 얼마 못가서, 로마는 아켈라오를 통해서는 도저히 유대를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주후 6년 퇴위시켰습니다. 그 후, 다스리기에 어려웠던 유대 땅은 황제가 임명한 총독의 직접적인 지배권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켈라오 외에 또 다른 분봉왕으로 빌립이 있었습니다. 눅 3:1은 빌립이 다스렸던 땅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단강 상류 지역의 상당부분을 포괄하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빌립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파네이온이라는 지역을 재건립한 후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아들 중 가장 유순했던 빌립은 자기 질녀 살로메와 결혼하였고, 그는 자식 없이 주후 34년 벳세대 궁전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분봉왕인 안티파스(성경에는 그냥 '헤롯')는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 베레아 분봉왕으로 신약에 등장합니다 (Jos.Ant.XVIII,36). 그는 로마와 관계에 있어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여, 통치기간 중 정치적 반란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처럼 헬레니즘 문화를 장려하고 건설에 적극적이어서, 황제 디베료(약 주후 22년)를 축하하기 위해 서해안에 디베랴 도성도 지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하여,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하였습니다.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택하였으므로 세례 요한은 이를 간음이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에 그는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막 6:19과 병행절들). 예수님께서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는 간음"하는 것 (막 10:11이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안티파스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주후 36년 나바티안 왕은 헤롯에게 이혼당한 딸의 원한을 갚고자, 베뢰아를 공격하여 안티파스의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전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안티파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시 알쏭달쏭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그냥 '헤롯'이라고 하니, 같은 사람같지만 사실은 '헤롯왕가'의 세 인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명을 듣고, 헤롯왕가 가계도를 한 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자명해집니다.

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또래의 아이를 다 죽인 '헤롯'은 안티 파테르의 아들인 '헤롯'(주전 37-4년)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이집트로 피난갔던 예수님께서 (마 2:19-23) 그

의 사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운 자로, 부인과 아들들을 죽였던 잔인한 인물입니다.

② 두 번째 헤롯은 빌라도에게 심문받으시던 예수님을 희롱하던 '헤롯'입니다 (누가 23:6-12). 이 '헤롯'(주전 4-주후 39년)이 앞에서 말씀드린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혼동을 피하려고 신약학자들은 그를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릅니다.

③ 세 번째 헤롯은 행 12:6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인데 그는 헤롯 대왕의 아내 마리암이 낳았던 아리스토틀의 아들입니다 (주후 37-44년).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립바"라고 불리웁니다. 신약성경은 이 세 사람 모두를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지만, 사실 헤롯 왕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을 간단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헤롯왕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신약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예수님 사역 당시 왕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정서와 배경을 파악하지 않고는 예수님 당시 정황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이 왕가가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다는 것과, 그럼에도 이스라엘백성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롯 왕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백성들의 메시아대망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가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출현에 당황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메시아운동을 중단시키려고 헤롯 안티파스가 애쓴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 참으로 정확하게 그 성격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눅 13:32).

왕의 왕되신 예수님은 겸손히 탄생하셨고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인류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은 죄와 불법과 탐욕과 철저히 비교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헤롯과 같이, 종교의 이름으로 탐욕을 채워가게 만드는 불법의 사탄을 좇아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 사역당시 중요한 역사적 배경 인물인 로마 총독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